



기업개요

2014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

BOUYGUES

미래 건설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목차

- 02 부이그 현황
- 09 부이그 그룹의 2014년 간략 재무제표
- 12 건설부문
 - 전세계적인 건설 및 서비스 업체 부이그 건설
 -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부이그 부동산
 -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콜라스
- 24 미디어
 -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TF1
- 30 통신
 - 고객에게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는 부이그 레콤
- 36 알스톰

기업개요는 부이그 그룹 홍보부가 발간한 문서이다. 2015년 3월. 디자인 - 제작: TERRE DE SIENNE Paris

PEFC와 FSC 인증 및 친환경 인쇄 Imprim'vert® 라벨을 보유한 프랑스 수도권 일-프랑스 지역의 인쇄업체.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숲의목재를 사용한 인쇄 용지 사용. 인터랙티브 기업개요: Prestimedia. 번역: 고은경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한정 인쇄한 문서이므로 본 문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주시요. 부이그는 프랑스의 종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조직, 재원 조달, 지원하는 EcoFolio에 환경기부를 합니다.

부이그의 기존 자료는 2015년 3월 19일부터 www.bouygues.com 및 그룹 인트라넷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싱가포르의 스포츠 허브 (부이그 건설); 피리의 D2 타워 (라데팡스) (부이그 부동산); 루아레 지방의 오를레앙과 클레르몽-페랑을 잇는 A71 고속도로 (콜라스); 앵커 안-클레르 쿠드레 (TF1); 부이그 텔레콤의 테크노놀 **사진 크레딧**, C. Abad (표지, p. 3, 31, 32, 35), M. Awaad / Bureau233 / TF1 (p. 24, 25), F. Berthet (표지, p. 29), R. Bonnet (p. 6), J. Cauvin / TF1 (p. 28), J. Chakson / 알스톰 트랜스포트 (p. 36), L. Chartier (p. 7), A. Da Silva / Graphix-Images (p. 18), B. Decoin / Shine France / Bureau233 (p. 26), R. Dessade (p. 19), H. Fabre (p. 6), A. Février (p. 7, 16, 20, 표지 4 면), 플로리다 교통부 (p. 17), agence Gabriel (p. 29), P. Guignard / Air Images (p. 2), 2013 Les films du 24 - TF1 Droits audiovisuels - TF1 Films Production (p. 29), É. Matheron-Balaly (p. 35), D. Mattioli / Capa Pictures (p. 4, 14), V. Paul (p. 12, 13, 15), C. Pedrotti et F. Louis (표지, p. 8), P. Perrin/Zoko Productions (표지), RGA/REA (p. 1), D. Rory (표지, p. 20), Z. Samiry (p. 5), L. Zabulon (p. 8), L. Zyberman / Graphix-Images (p. 8). **건축사무소:** Atelier Wilmotte & Associés (p. 18, 20), Arup Sport - DP Architects (표지, p. 20), A. Béchu & T. Sheehan Architects (표지), J.-P. Cabane (p. 19), J. Dirkeloo & Associés (표지 4 면), F. Lederqcq Architectes Mekene (p. 8), K. Roche (p. 2, 표지 4 면), SCAU (p. 12, 13, 15), SRA-Architectes (p. 2, 표지 4 면), Valode & Pistre (표지).

마르텡 부이그 회장의 인사말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 및 경쟁 상황을 반영하는 영업실적의 이면에서, 부이그 그룹은 2014년 신속한 대응력을 입증하고 체질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설부문 -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 은 국제부문에서의 역동성, 노하우에 기반한 경쟁력, 그리고 강한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건설부문 수주잔액은 276억 유로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국제부문은 이제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 수주잔액의 절반 이상입니다.

TF1의 시청률은 2014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경제모델 개편 작업이 영업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로드맵대로 사업개편 계획을 추구한 결과, 전략 성공의 첫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부이그 텔레콤의 4G를 찾고 있는데, 부이그 텔레콤 고객 중 2013년 12월 말 9%였던 4G 사용자가 이제는 28%에 달합니다. 이들은 프랑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최대 소비자들로, 프랑스 전체 4G 고객의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연간 약 150 유로의 유선 고속 인터넷 요금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당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요금제의 첫 실적은 매우 뛰어납니다. 2014년 415,000 명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부이그 텔레콤이 동시장내 순성장 1위^a로 부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44억 유로의 순부채를 2014년 12월 말 기준 32억 유로로 감소시킨 부이그 그룹은 재무실적을 강화하였습니다. 코피루트 및 유로스포트 인터내셔널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과 그룹 전사업부문의 양호한 운전자금소요^b 관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알스통의 에너지 부문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일궈주며, 부이그가 보유한 알스통 지분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뛰어난 국제진출과 고객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군을 갖춘 알스통은 이제 성장일로를 걷는 교통 시장의 세계 1 회사로 부상할 것입니다.

2015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프랑스의 경제 및 경쟁 환경 속에서 부이그 그룹의 전사업부문은 시장적응을 위한 개편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2016년에도 다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 그리고 고객 및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25일

2014년 주요지표

직원수

127,470 명

매출액

331.38 억 유로 (-)

영업이익

11.33 억 유로 (-8%)

그룹 지분 순이익

8.07 억 유로^a

(a)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순매도차익 2억 4000만 유로 및 유로스포트 인터내셔널 지분(31%) 순매도차익 1억 1600만 유로와 잔여 지분(49%) 재평가 포함

순부채

32.16 억 유로

(- 12.19 억 유로)

주당 배당금

1.60 유로^b

(b) 2015년 4월 23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a) 2014년 4분기는 자사 평가, 그 전 분기들은 프랑스 통신규제청(ARCEP) 수치에 근거
(b) 운전자금 소요

부이그 현황

세계 100 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 그룹은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강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

127,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이그는 다각화된 산업 그룹이다.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함으로써 (건설부문, 미디어, 통신 사업) 고객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부이그는 직원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각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언제나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전개한 결과 지속가능건설 부분의 리더사로 등극하고, 국제부문의 사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2014년 부이그 건설 및 플라스의 프랑스를 제외한 외국 매출액 비중은 49 %이다).

그룹의 장점

안정적인 주주구성

부이그의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와, 마르텡 부이그 회장과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의 지주회사인 SCDM이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 SCDM은 20.9 %의 지분과 27.3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 부이그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6만 명 이상이며, 이는 기업주식저축을 채택한 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중 1 위이다. 직원들은 현재 23.3 %의 지분과 30.6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참여도 높은 주주들이 있기에 부이그는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펼칠 수 있다.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

1952년 그룹 창립 초기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부이그 기업문화의 특징은 프로젝트 관리의 노하우와, 5 대 부문 공통으로 적용되는 존중, 신뢰, 형평의 3 대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 부여에 기반한 인사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

건설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인프라와 주택 수요가 매우 크다. 지속가능건설(전력 저소비 건물이나 에너지 생산 건물, 친환경지구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이그는 이 시장에서 혁신적인 노하우를 개발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 통신 및 미디어 시장 역시 빠른 기술 발전 및 사용자들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건실한 재무구조

부이그는 건실한 재정 프로 필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운데 투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부이그 그룹은, 부채율이 매우 낮으며 다량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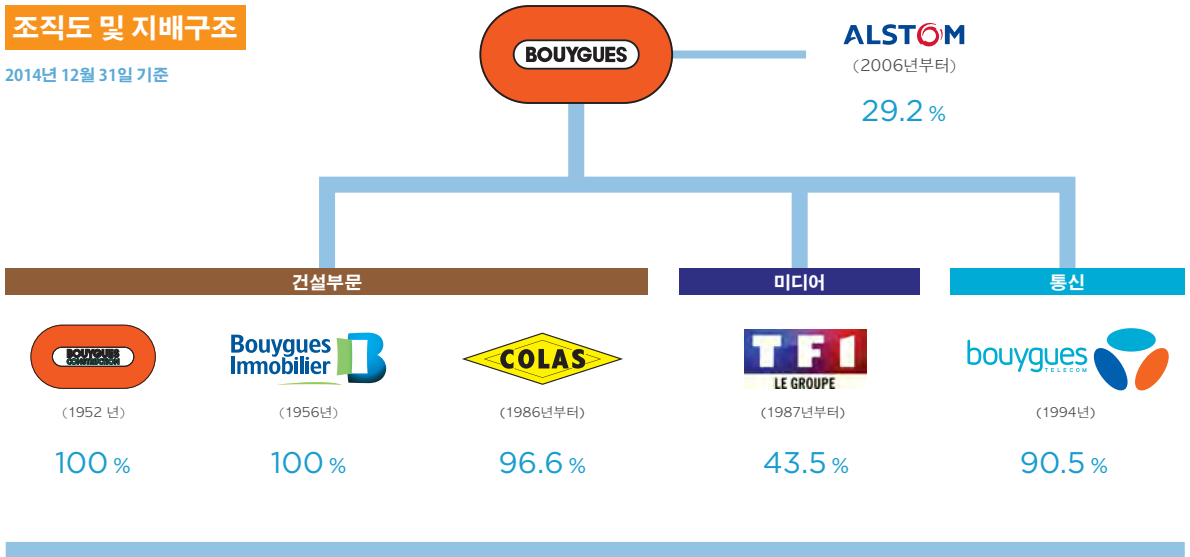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부이그는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4년 평균 수익률은 5.5 %였다.

세계 최초로 HQE®, LEED®, BREEAM® 의 3중 인증을 받은 부이그 건설의 본사 헬린저



조직도 및 지배구조

2014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진

본사

- Martin Bouygues**
회장
- Olivier Bouygues**
부회장
- Jean-François Guillemin**
총무 이사
- Philippe Marien**
그룹 재무 이사
- Jean-Claude Tostivin**
인사 및 관리 총괄 부사장

5 대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

2015년 3월 3일 기준

- Philippe Bonnave^a**
부이그 건설 회장
-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 Hervé Le Bouc**
클라스 회장
- Nonce Paolini**
TF1 회장
- Olivier Roussat**
부이그 텔레콤 회장
- Martin Bouygues**
회장
- Olivier Bouygues**
부회장 및 SCDM 상임대표
- Michel Bardou**
우리사주 대표
-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 Francis Bouygues 부인**
- Jean-Paul Chifflet**
Crédit Agricole SA 사장
- Georges Chodron de Courcel**
SAS GCC Associés 회장
- Raphaëlle Deflesselle**
우리사주 대표
- Yves Gabriel**
부이그 건설 회장
- Anne-Marie Idrac^b**
전임 SNCF 회장
- Patrick Kron**
알스톰 회장
- Hervé Le Bouc**
클라스 회장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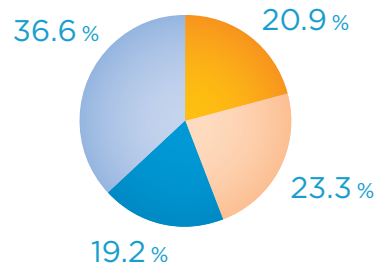
2014년 12월 31일 기준

- Helman le Pas de Sécheval^b**
Veolia 총무 이사
 - Colette Lewiner^b**
Capgemini 회장 자문
 - Sandra Nombret**
우리사주 대표
 - Nonce Paolini**
TF1 회장
 - Jean Peyrelevalde^b**
Aforge Degroof Finance 파트너
 - François-Henri Pinault^b**
Kering 회장
 - Rose-Marie Van Lerberghe^b**
파스퇴르 연구소 이사회장
 - Michèle Vilain**
우리사주 대표
- (a) 2015년 3월 3일, Philippe Bonnave가 Yves Gabriel의 후임으로 부이그 건설 회장에 취임 하였다.
(b) 이사회가 독립이사로 규정한 이사

그룹의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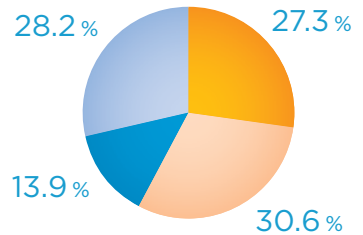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분 비중



336,086,458 주

의결권 비중



492,710,591 개의 의결권

- SCDM^a
- 우리사주
- 기타 프랑스 주주
- 외국 주주

(a) SCDM은 마르탱 부이그 회장 및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이 지배적 지분을 지닌 기업이다.



책임 부여와 자율성 확보에 중점을 둔 직원 교육 방식

가치관 공유

부이그 직원들은 인사현장에 명시된 존중, 신뢰, 형평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부이그의 인사관리는 기업가적 비전과 인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신뢰와 자율성

부이그에서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부서에 책임이 주어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직원들은 채용 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직원들의 노하우와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전직급의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나 국제부문에서나 다수의 교육 계획을 직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부이그의 노력은, 프랑스의 법적 의무를 크게 상회하는 예산(급여총액의 3.9%)을 직원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사내 업무이동 역시 장려되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에 일조할 뿐 아니라 기업내 조업량 변화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용 예정 직책들은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룹 본사뿐 아니라 5 대 자회사는 사내 업무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고 있다.

사내승진과 급여

부이그는 애사심과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내승진을 장려한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급여정책을 펴고 있다. 급여정책은 직원들의 잠재력, 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이그는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되는 13개월차 급여, 추가 사회보장 정책, 이익공유, 연금저축, 회사 보조,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센티브형 기업직원 저축이 시행되고 있다(기업주식저축, PERCO[®] 등).

(a) 단체연금저축

직원

127,470 명

2014년 총직원수

(프랑스에서 71,791 명, 전체 직원의 56%)

채용

34,914 명

2014년 전세계 채용 인원

프랑스에서 4,665 명 채용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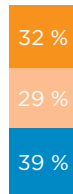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직급

전세계
(프랑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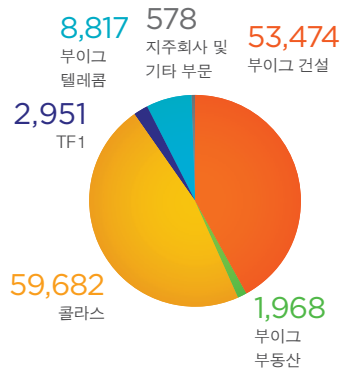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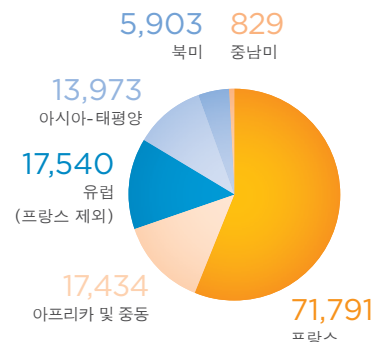


- 관리직 및 기술직
- 현장사원
- 관리직
- 평사원, 기술직, 조장 (중간 관리직)

부문별 그룹 직원수



지역별 그룹 직원수



건강 및 안전

건강 및 안전 정책은 부이그 그룹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자회사들은 현장에서 업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동부문 다른 회사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5년째 지속적인 향상을 기록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업무의 육체적 난이도를 하향조정하고 각종 중독 방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룹의 모든 자회사들이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회의 균등

직원들은 인적사항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처우의 형평과, 업무 및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룹의 모든 자회사는 장애, 연령, 출신, 남녀 고용 비율 균형 등에 대해 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이그 바티망 인터내셔널, 부이그 텔레콤과 TF1은 프랑스 규격협회 Afnor의 다양성 라벨을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부이그 부동산의 업무 회의



노사대화

부이그 그룹의 노사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가능케 한다.

각 자회사의 노사대화 기구 외에도, 그룹 노사위원회^a와 유럽 노사위원^b가 부이그 그룹의 전분야 사회 파트너와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직원들은 직원대표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2014년 81%) 양질의 노사대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부이그의 투표율은 프랑스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직원대표들에게 강한 정통성을 부여한다. 프랑스에서는 그룹의 모든 부문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와 노조의 대표들이 동수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a) 부이그 그룹 소속 기업 노조 대표 30 명으로 구성

(b) 11 개 국가 직원 대표 24 명으로 구성

기업책임투자

부이그, 3대 지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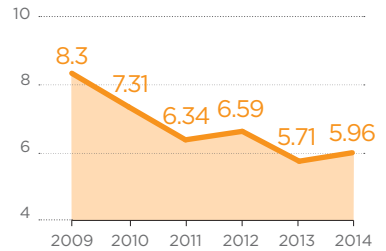
2014년 부이그는 MSCI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 STOXX 글로벌 ESG 리더 지수 및 유로넥스트 비지오 유로존 120 지수 등, 기업책임투자 3대 지표 도입을 승인받았다.

인프라와 도시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부이그의 노력과, 책임 있는 기업활동(윤리, 구매정책)이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또한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업무를 통한 자아성취를 장려하고자 하는 부이그의 의지를 보여주어주고 있다.

안전

부이그 그룹 직원의 산재사고 빈도^a

범위: 전세계



■ 빈도

안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4년 경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부이그의 산재사고 빈도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현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히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가 공사현장과 도로 안전 면에서 펼치고 있는 강력한 안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a) 업무종단을 동반한 산재사고 수 x 1,000,000 / 근무 시수

콜라스

책임 있는 구매

작업복 인증

2014년부터 콜라스의 3만여 직원들은 점차적으로 막스 하블라르 공정무역 라벨을 받은 말리의 공정무역 유기농 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작업복을 채택하였다. 원자재 생산에서 북아프리카 공방에서의 작업복 제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감사와 인증을 거쳤다. 콜라스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CDAF^a가 수여하는 지속가능 책임 있는 구매상과 해당 부문 야누스 라벨 등, 2014년 4 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a) 프랑스경영진및구매자협회

환경 보존

에너지 절감

부이그는 에너지 생산 건물, 친환경지구 및 지능형 네트워크 등 지속가능건설 부문에서 최고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자사 건물에 동부문 최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특히 재생 에너지 잠재력 발굴을 가능케 하는 감사와 진단, 그리고 에너지관리 시스템 실시 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폐기물 관리

소재를 다량 생산하고 사용하는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사업 수행시 발생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면에 있어서 법적 의무규정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중고 휴대폰 재활용 네트워크를 수립하였다. 또한 부이그 그룹은 전문 사회적 기업에 의뢰하여 전사적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보르도의 김코(부이그 부동산)는 2014년 프랑스의 ÉcoQuartier 인증(친환경지구 인증)을 받았다



주요 사회적 안전 고려

윤리 원칙 준수

부이그 그룹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존의 그룹 윤리강령을 경쟁권, 부패 방지, 재무정보 및 이해상충에 대한 준법 프로그램들로 보완 및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였다(사내 뉴스레터, 인트라넷, 우편물 등).

임원들은 IMB(부이그경영대학원)으로부터 윤리와 부이그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002년 IMB 창립 후 700 명 이상의 임원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범위: 전세계



17,076

킬로톤 등가치의 탄산가스
2014년 배출

기후문제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주요 기업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부이그는 2014년 <에너지와 탄소 트로피>라는 이름의 사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 목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분야의 측정가능한 진전을 도출할 수 있는 혁신들을 장려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그룹 전 부문에서 제출된 180 개의 프로젝트 중 8 개가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는데, 이들 프로젝트는 www.bouygues.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클라스는 몽방투 접근로(보클뤼즈 지방)를 재활용 및 재처리하였다





콜라스, 상보르 성에 재능 기부: 성 주위의 산책로 6,000 m² 재정비

책임 있는 구매

부이그 그룹은 또한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의 선행사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책임 있는 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을 각 부문에서 전개함으로써 2014년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콜라스가 수상한 <지속가능 책임 있는 구매상>, TF1이 자사 구매정책에 대해 수상한 <국제 다양성 모임상>).

2014년 1월 부이그는 전그룹 차원에서 2015년 말까지 각 부문의 목표 및 전개해야 할 행동계획을 정립한(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 현황 파악, 요구되는 사항, 규칙, 달성 목표 및 지표 설정) 구매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공식적으로 확립하였다.

후원정책 개발

그룹의 본사인 부이그 주식회사 차원의 후원 정책은 사회, 교육, 인도적 차원 등 3대 활동영역을 아우른다. 2014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프랑스 부이그 기업재단은 학업에의 열정은 있으나 진학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마다 부이그 그룹 직원이나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옛 장학생이 후원자로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한다. 현재 10기생까지 총 546명의 학생들이 재단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부이그는 본사와 5대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원 정책 외에도, 전세계 어디에서나 진출지의 지역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용, 사회통합 등).

TF1

파리 기후회의의 2015

TF1 그룹, 기후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

TF1은 2015년 파리 기후회의의(COP21: 11월 30일 ~ 12월 15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6일 지구보호를 위한 프랑스 대통령 특사 니콜라 윌로, UN 세계기업협약(UN Global Compact) 특별 자문 브리스 라롱드, 장-마르크 앙고비치 더 쉬프트 프로젝트³ 회장, 2007년 알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GIEC²의 부회장 장-파스칼 반 이페르셀레 등, 동분야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후 문제 솔루션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TF1PARISCLIMAT2015

COP21 웹사이트를
조회하시려면
이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 (a) 탄소와 화석 에너지로 인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범유럽 다분야 싱크 탱크
- (b) UN의 두 산하기관(WMO와 UNEP)이 창설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전문가 그룹



상세 정보:
www.bouygues.com
[@GroupeBouygues](https://twitter.com/GroupeBouygues)



프랑스 부이그 기업재단:
마린-에바와 후원자 디디에
(부이그 텔레콤)

수치와 사진으로 본 2014년

1. 홍콩 - 주하이 - 마카오 간 교량 건설현장. 길이 42 km의 이 교량은 부이그 건설 역사상 최장 고가교량이다.
2. 부이그 부동산, 낭테르 퀘르 드 카르티에 복합도시개발지구 제 2 단계 수주 (UrbanEra®)
3. 콜라스의 클레르몽-페랑(뛰이-드-돔 지방) 구간 A71 고속도로 확장 공사
4. 부이그 텔레콤의 트리플 플레이 요금제 광고
5. TF1, 2014년 3월 <본 아니베르세르 레 장포아레>, 공연 방송으로 오락 부문 시청률 1 위 기록(1300만 명^a 시청)



3 대

기업책임투자 지표

MSCI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 STOXX 글로벌 ESG 리더 지수 및 유로넥스트 비지오 유로존 120 지수를 부이그가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회, 기업, 환경 분야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다.

17.6 m

세계 최대 터널굴착기의 직경

부이그 건설은 이 굴착기를 사용하여 홍콩의 투엔 문과 첩람콰를 잇는 쌍튜브 해저 터널 도로 공사를 할 예정이다.



3억 1800만 유로

레유니옹 신계약 총액

콜라스가 수주한 레유니옹의 제방도로 4 구간 건설 공사의 액수이다.

19.99 유로

월별 요금

유선통신 부문에서 부이그 텔레콤이 제공하는 새로운 트리플 플레이(전화, 인터넷, 텔레비전) 표준요금이다. 부이그 텔레콤은 이렇게 타사와 차별화되는 포지셔닝을 통해 2014년 유선통신 부문 순성장 1 위를 기록하였다.



1690만 명^a

의 시청자

가 7월 TF1이 방송한 2014년 피파 월드컵 8 강전에서 대결한 프랑스-독일전을 시청하였다.

(a) 출처: 미디어메트리-미디어팟



부이그 그룹의 간략 재무제표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자산	2013 재처리 ^a	2014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8,112	8,267
영업권 ^b	5,245	5,286
고정 금융자산 ^c	4,082	4,663
기타 고정자산	251	288
고정자산	17,690	18,504
유동자산	11,814	12,199
현금 및 현금 등가물	3,546	4,144
금융상품 ^d	14	21
유동자산	15,374	16,364
매각 예정 자산 및 사업 ^f	1,151	
자산 총계	34,215	34,868

자기 자본 및 부채

	2013 재처리 ^a	2014
자기 자본(그룹 지분)	7,150 ^e	7,854
지배권 무보유 지분	1,519	1,601
자기자본	8,669	9,455
장기부채	6,601	5,850
장기 미지급 비용	2,173	2,305
기타 고정 금융부채	167	153
고정부채	8,941	8,308
유동 금융부채	1,006	1,267
유동부채	15,045	15,574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잔고	362	234
금융상품 ^d	26	30
유동부채	16,439	17,105
매각 예정 사업 관련 부채 ^f	166	
자기 자본 및 부채 총계	34,215	34,868
순금융부채	4,435	3,216

(a)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는 IFRS 10 및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b) 그룹 통합 기업의 영업권

(c) 지분법 평가 포함(귀속 영업권 포함)

(d) 금융부채의 정확한 가치 환산

(e) 알스톡 평가절하로 인한 영향 포함

(f) 2014년 매각된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TF1)과 코피루트(콜라스) 관련

(g)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 매도차익(31%) 3억 1300만 유로 및 잔여

지분(49%) 재평가분 포함

(h)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순매도차익 2억 5300만 유로 포함

(i) 4G 주파수 금융비용 - 3300만 유로의 그룹 계정 내 자본전입 포함

(j) 코피루트(콜라스) 매각 수익 7억 7000만 유로,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31%) 매각 수익 2억 5900만 유로 포함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유로

	2013 재처리 ^a	2014
매출액	33,121	33,138
경상영업이익	1,319	888
기타 영업이익 및 비용	(91)	245 ^g
영업이익	1,228	1,133
순금융비용	(304)	(311)
기타 금융이익 및 비용	(26)	10
법인세 비용	(360)	(188)
공동기업 및 합작기업 참여지분 손익배당	217	420 ^h
사업 부문 순이익	755	1,064
지배권 무보유 지분 순이익	(108)	(257)
알스톡 평가절하를 제외한 순이익(그룹 지분)	647	807
알스톡 평가절하	(1,404)	
연결 순이익(그룹 지분)	(757)	807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유로

	2013 재처리 ^a	2014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20	2,258
단기 지급 세금	(294)	(319)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금 소요 변동	(180)	8
A -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2,246	1,947
투자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순영업투자	(1,271) ⁱ	(1,362)
기타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169)	1,047 ^j
B -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1,440)	(315)
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연내 지불 배당금	(590)	(198)
기타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1,181)	(818)
C - 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1,771)	(1,016)
D - 환율 변동 사항	(58)	110
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A + B + C + D)	(1,023)	726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의 현금흐름 중립화	(69)	
기초의 순현금	4,276	3,184
기말의 순현금	3,184	3,910

2014년 부이그 그룹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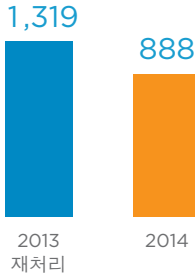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알스툼은 자본법 평가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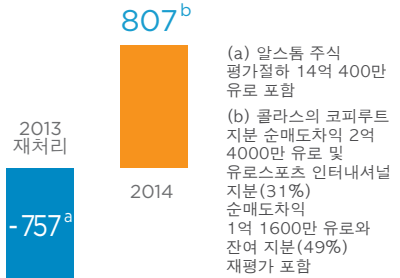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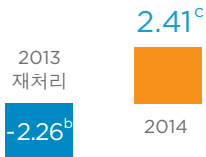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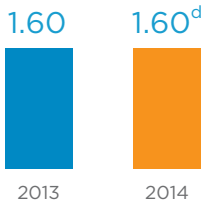
주당 순이익^a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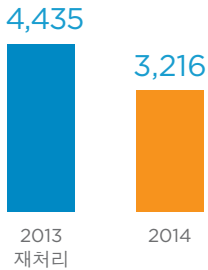


주당 배당금

단위: 유로



순부채



(a) 사업 부문의 그룹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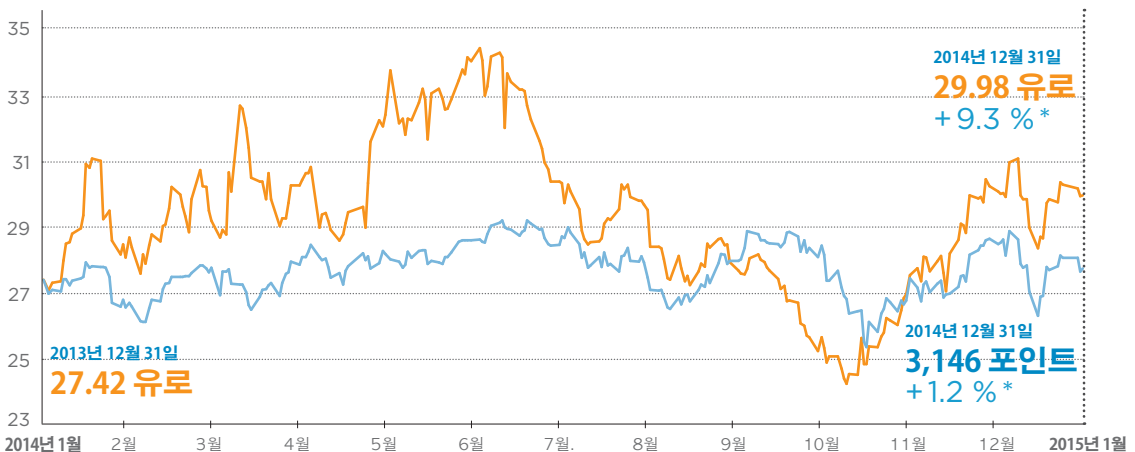
(b) 알스툼 주식 평가절하 14억 400만 유로 포함. IAS 33 기준을 적용하여, 2014년 발행한 배당금 지급용 주식 수를 감안하여 2013년 발표된 주당 순이익을 재처리하였다.

(c)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순매도차익 2억 4000만 유로 및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 지분(31%) 순매도차익 1억 1600만 유로와 잔여 지분(49%) 재평가 포함

(d) 2015년 4월 23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2013년 말 이후 주가 추이

장 마감 후 주가(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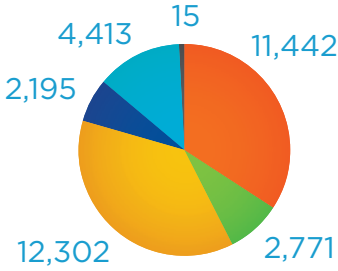
(*) 2013년 12월 31일 대비

사업 부문별 기여도

알스톱은 자본법 평가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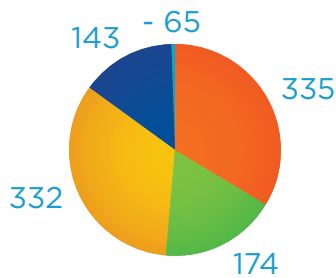
매출액

331.38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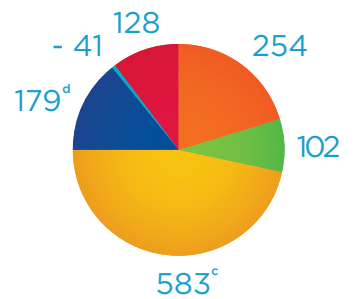
경상영업이익^a

8.88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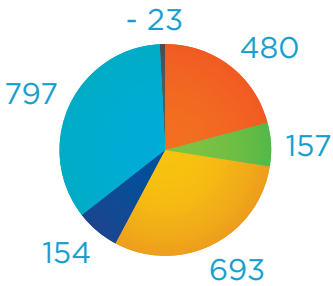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b

8.07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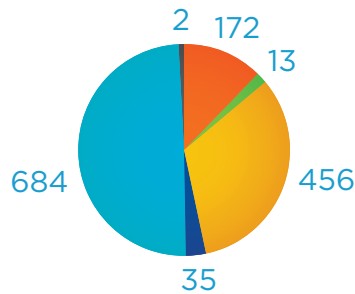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8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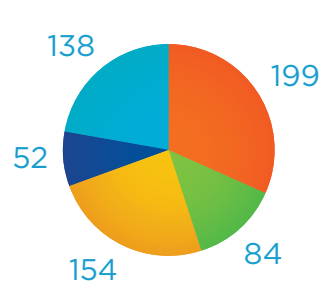
순영업투자

13.62억 유로



잉여현금흐름^e

3.97억 유로



● 부이그 건설 ● 부이그 부동산 ● 콜라스 ● TF1 ● 부이그 텔레콤 ●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 ● 알스톱

(a)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경상영업이익은 - 3100만 유로.

(b)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순이익은 - 3억 9800만 유로. 이는 지주회사 계정에서 영업권 1억 4700만 유로를 감산한 수치임: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매각 관련 1억 3200만 유로 및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 지분 매각 관련 1500만 유로.

(c) 코피루트 지분 매각 관련 순차익 3억 7200만 유로 포함

(d)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 지분(31%) 순매도차익 1억 3100만 유로와 잔여 지분(49%) 재평가포함

(e) 잉여현금흐름 =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순금융비용 - 세금 - 순영업투자.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잉여현금흐름은 - 2억 3000만 유로.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및 콜라스로 구성된 건설부문을 보유한 부이그는 동부문의 리더사 중 하나이다. 인적자본, 고부가가치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국제 진출이 미래를 위한 부이그 건설 부문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주요 통합 지표

115,124 명

직원수

265억 유로 (+ 2%)

매출액

9.39억 유로^a (+ 38%)

순이익

(a) 콜라스의 코퍼투트 지분의 순매도차익 3억 7200만 유로 포함

부이그 건설이 확장 및 지붕 설치 공사를 담당하여
2014년 10월 16일 개장한 마르세이유의 새로운 자전거 경기장

건설부문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한 제안



부이그는 도시화와 편리한 교통이라는 거대 명제에 부응하여 건설토목, 에너지와 서비스, 양허(부이그 건설), 부동산 개발(부이그 부동산), 교통 인프라(콜라스)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략

건설부문이 전세계 100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부이그는 인프라 수요의 증가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 한 동부문 세계 리더사 중 하나이다.

부이그는 프랑스와 국제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혁신과 지속가능건설에 기반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점

인적 자본

인적자본은 부이그 그룹이 보유한 진정한 장점이다. 부이그 그룹은 의욕적인 직원들의 노하우와 경험에 힘입어 민관 부문 고객들의 소요에 보다 잘 부응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적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건설부문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솔루션 제안

- 프로젝트의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 제안: 자원조달, 설계, 시공, 사후관리.

-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적 전문성. 부이그 그룹은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고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터널, 교량, 고층 건물).
-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경쟁우위. 부이그 그룹은 특히 최종 사용자들(가정, 기업)의 에너지 발자국 및 비용 감소를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부이그는 프랑스 및 국제부문의 에너지 생산 건물이나 지속가능지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 전문분야 사업. 부이그 그룹은 또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에너지 네트워크, 설비 사후관리, 철도 등)을 개발하고 있다.

견조한 국제 진출

프랑스 전역에 촘촘히 진출하여 있는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또한 전세계 5 대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현지 사회사의 사업역량과 특정 대형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팀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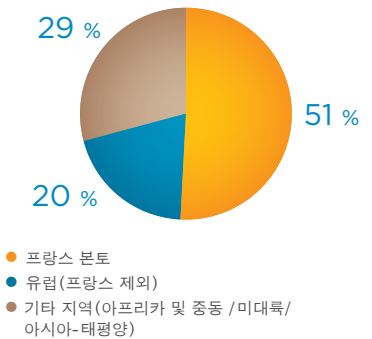
강력한 적응력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우수한 노하우에 힘입어, 고객의 수요와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견조한 재무구조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사업실행상의 위험과 재무분야의 위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고객들이 장점으로 꼽는 견조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수주잔액



콜라스

자재 생산 사업

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사업 수행

콜라스는 도로 시공 전단계에서 건설 자재 생산 및 재활용을 대규모로 수행함으로써 시공 전단계의 산업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자재 조달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재 조달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수행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유제 및 코팅재 생산 전세계 리더사인 콜라스는 골재 허용 보유량 23억 톤 - 27 년간의 생산량에 해당 - 과 잠재 보유량 18억 톤을 확보하고 있다.

골재 채취량(즉 신규 채석장 설립)과 자재 폐기물 감소를 위하여 콜라스는 재활용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종 고객은 동일 성과를 누리면서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콜라스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14년 주요 사항

주요 매각 및 인수

-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16.67 % 매각.
- 부이그 건설의 캐나다 플랜 그룹 인수; 콜라스의 덴마크 코팅재 생산 판매사 인수 및 호주 선스테인스사 도로 코팅 부문 자산 인수.

주요 매각 및 인수(계속)

- 부이그 부동산: 프랑스에서 실버타운 레 자르덴 다카르디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정을 아카파스와 체결.

콜라스 레일, 말레이시아 수도의 경전철 1 개 노선의 연장 공사를 실시





남-몽펠리에 철도 노선 우회선로 공사현장(부이그 건설 - 콜라스 - 알스톰)



전세계적인 건설 및 서비스 업체

전세계 80 개국에 진출한 부이그 건설은 일상 생활과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구조물들을 설계, 건설, 운영하고 있다. 부이그는 지속가능건설의 리더사로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도시 개발 및 운영사인 부이그 부동산은 프랑스의 36 개 지사와 국제부분 3 개 지사를 통해 주택, 사무실 건물 및 상가, 그리고 지속가능지구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전세계 50 개국 이상에 진출한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의 건설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사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생산한다. 콜라스는 이동성, 도시화, 환경 등의 대명제에 부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사업현황

2014년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다시 한번 국제부문에서의 역동성, 경쟁력,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프랑스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었다.

견조한 영업활동

2014년 말 건설부문은 276억 유로의 높은 수주잔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국제부문의 역동성으로 프랑스 시장의 침체를 상쇄할 수 있었다.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 수주 잔액의 53 %는 국제부문의 수주로, 전년의 비중은 50 %였다.

부이그 건설의 수주량은 116억 유로로, 특히 홍콩의 2대 대형 사업인 리엔탕과 사틴을 홍콩 센트럴과 연결하는 터널 수주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총수주잔액은 181억 유로로, 향후 사업에 대한 양호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

부이그 부동산은 2013년 대비 2 % 신장한 19억 유로의 주택 예약매물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였다. 기업부동산 예약매물은 6억 3백만 유로로, 녹색 부동산과 턴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전략의 성공을 반영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총수주잔액은 24억 유로에 달했다.

지자체 투자의 극심한 감소로 2014년 2분기부터 프랑스의 도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스의 수주잔액은 전년 대비 경미하게 증가한 72억 유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해외영토와 북미권 등 국제부문의 역동성과 활발한 철도부문이 프랑스 본토 도로 사업의 하강세를 상쇄하고 있다.

2014년 주요 사항(계속)

주요 계약 체결

- 사틴 - 홍콩 센트럴 간 터널.
- 볼로뉴-비양쿠르(오-드-센느 지방)의 음악의 전당.
- 가나의 리지 병원.
- 레유니옹 해안도로의 고가도로, 제방도로, 입체교차로.
- 영국의 다년간 철도 사후관리 계약 2 건.
- 캐나다 63번 고속도로의 구간들.
- 파리의 SMA 사옥 건설 계약.

공사 진행중인 사업

- 파리의 프랑스 국방부 건물.
- 홍콩 - 주하이 - 마카오 간 교량.
- 남-몽펠리에 간 우회선로.
- 도하 카타르 석유지구의 부동산 단지.
- 캐나다 이팔루이트 공항.
- 헝가리의 M4, M85, M86 고속도로 및 슬로바키아의 R2 고속도로.
- 말레이시아의 케랄나 자야 - 쿠알라 룸푸르 간 경전철.

인도 완료 사업

- 싱가포르의 종합 스포츠 센터 스포츠 허브.
- 마이애미 항의 터널.
- 마르세이유의 자전거 경기장.
- 파리 동물원.
- 로크브뤼느-카프-마르탱의 친환경지구 카프 아쥐르.
- 파리의 클라라스 신사옥.
- 라 프랑세즈 REM(히카리 사업)에 판매한 리용 콩플뤼앙스의 히가시 건물.
- 프랑스 브장송과 마르세이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트램웨이.



아비장의 팀 리더 자라타 벨렘(부이그 건설)

건설부문

매출액 분포

148.7억 유로 (56%)

프랑스

265.15억 유로

48.71억 유로 (18%)

유럽(프랑스 제외)

28.7억 유로 (11%)

북미

21.61억 유로 (8%)

아시아-태평양

2.15억 유로 (1%)

중남미

15.28억 유로 (6%)

아프리카 및 중동



마이애미, 부이그 건설이 건설한 해저 터널로 도심 교통난 완화

기대에 부응하는 재무실적

2014년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국제부문 사업의 역동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 증가한 265억 유로에 달했다.

건설부문의 경상영업이익은 8억 4100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은 3.2%에 달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는데, 수익성 추이는 부이그 건설의 대형 건설현장 다수의 공사 착수와 진행 부진, 프랑스 도로 시장의 급하락, 플라스틱 정유 기반 제품 판매사업의 영업 손실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사업부문은 필요한 시장 적응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비용구조가

매우 유연한 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건설부문은 견조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2014년 말 기준 건설부문의 순현금은 38억 유로에 달했다.



루에이(오-드-센느 지방) Green Office*, 2012년 열효율 법규 규정 대비 104 %의 에너지 절감 달성

주요 과제인 지속가능건설

지속가능건설은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희소화 등, 21세기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설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 1억 9000만 채의 열효율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이러한 도전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건물이나 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효율성이 날로 제고되는 건물

부이그는 프랑스와 국제부문에서 에너지 저소비 건물 건설의 노후를 개발하였는데, 부이그가 건설한 건물들의 인증 실적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부이그는 법적 의무규정을 훨씬 상회하여, 고객들을 위해 연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에너지 생산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건물을 목표로

부이그 부동산의 에너지 생산 사무실 건물 Green Office®는 계약서로 보장되는 에너지 고효율 기능과 최적의 체감 편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사무실세가 시가보다 약간 높지만 관리비가 훨씬 낮은

Green Office®의 경제모델은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힘입어 부이그 부동산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기업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열효율 리모델링 개발

열효율 리모델링은 강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프랑스의 3300만 채의 주택 중 400만^a 채의 주택이 에너지를 과사용하며^b, 전체 주택의 55 %가 열효율에 대한 일체의 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부이그는 모든 종류의 건물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리모델링 상품을 개발하였다.

부이그 건설은 이 분야에 대한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 본사건물인 챌린저의 리모델링을 2014년 완료하였다. 65,000 m²에 달하는 챌린저 건물은 에너지 생산 건물로 리모델링 되어, 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및 태양열) 생산 및 운송, 용수 처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받고 있다. 챌린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최고 수준 인증(LEED®, BREEAM®, HQE®)을 확보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정을 받았다.

부이그 건설

성과 높은 프로젝트의 친환경 설계

환경 인증이나 라벨 약정 건물의 수주 비중

범위: 전세계 건물 사업 부문*



66 % 2014년 비중,
2007년 대비 2.8 배 증가

건물 수주 중 환경 인증 비중은 여러 대규모 사업에 힘입어 2007년 23 %에서 2014년 66 %로 증가하였다.

(a) 매출액의 56 %

부이그 부동산

기업 부동산 부문 성장의 동력인 녹색 부동산 추진

2014년 시공중거나 인도된 Green Office® 사무실 면적



82,789 m²
2011년 이래 누적 면적
(2013년 수치는 47,589 m²)

2014년에는 47,589 m²에 달하는 샤프레-말라브리 및 루에이-말메종의 Green Office®와 리옹의 히카리 프로젝트(기업 및 상업 부동산 부문)에 이어, 35,200 m²에 달하는 낭테르의 새로운 Green Office® 스프링이 추가되었다. 이들 에너지 생산 건물의 총면적은 부이그 부동산이 시공중인 총 기업 부동산 면적의 27 %에 달하므로, 2015년까지 20 %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

(a) 출처: 환경에너지관리공단 (Ademe) - 프랑스

(b) 1차 에너지 소비 연간 400 Kwh/m² 이상

생물다양성 존중 및 장려

부이그는 자사 구조물 및 채석장과 골재 채취장 주변의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결성된 바이오지티브(Biositiv)^a는 건설부문의 동식물종 보존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부문, 특히 도시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ibi^b는 2013년 말 국제적 라벨인 BiodiverCityTM를 창설하였다. 2014년, 부이그 건설 및 부이그 부동산의 많은 사업들이 BiodiverCityTM인증을 받았다.

구조물 사후관리

지속가능건설의 경우 건물의 성과는 설계-건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수명기간 전체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는 적절한 운용 경비 유지와 건물들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도시

부이그 그룹은 자원 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의 친환경지구 조성 전문 기업 중 하나이다. 현재 보르도의 키크, 리옹의 히카리, 취리히의 그린시티 등 다수의 친환경지구가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이다

에너지 관리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사용하면 사무실, 상가, 레저 시설의 주민과 사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친환경지구 프로젝트에 지능형 에너지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상품(현재 이씨-레-몰리노에서 IssyGrid[®] 시범 실시 중)는 전력 소비 첨두부하를 완화시키고 전력망의 일반적 부하량의 균형을 제고하는 동시에 탄소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a) 부이그 그룹의 각 사업부문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략을 지원하는 사내 자문기구
(b) 생물다양성과 부동산 국제위원회, 부동산 개발업체, 사용자, 비정부기구, 부이그 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성한 기구

부이그 부동산이 로크브린-캄-마르텔(알프-마리팀 지방)에 조성한 친환경지구 캅 아쥐르, 프랑스 환경및에너지조절청(Ademe)으로부터 상 2 회 수상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는 Citybox[®] 상품으로 지자체들이 가로등의 중앙 제어를 통해 공공조명명 운용을 향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시 관리 툴(스피커, 감시 카메라 등)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Alizé[®]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최적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다.

친환경적인 편리한 교통수단 장려

미래의 도시경영에 있어 대중교통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알스톰, 부이그 토목, 콜라스는 대중교통수단(트램웨이, 지하철) 개발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함께 역량을 모아 전기자동차 전개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과제는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이그 부동산은 2014년 여러 기업의 직원들의 자택 근처에 다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원거리 사무실을 설치하는, Nextdoor[®] 상품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부이그 자회사들의 시너지와 협업적 접근방식의 결실로서, 잘 타겟화된 산업 파트너십이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세 정보:
www.bouygues.com
[@GroupeBouygues](https://www.facebook.com/GroupeBouygues)

부이그 부동산

지속가능지구 설계

낭테르 퀘르 드 카르티에의 총면적 (UrbanEra[®] 방식)



73,700 m²

2014년 부이그 부동산은 UrbanEra[®] 방식을 인정받아 상가(13,000m²), 사무실(에너지 생산 건물 Green Office[®] 1 동 포함 26,000 m²), 그리고 주택(34,000 m²)으로 구성된 복합도시개발지구 낭테르 퀘르 드 카르티에(오-드-센-스 지방)의 제2 단계 조성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낭테르 퀘르 드 카르티에는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그리드^b 제어를 통합하였다.

(a) 1차 진단에서 지구 운용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지구의 조성 및 장기적 관리 지원
(b) "지능형" 배전망

콜라스

역청 코팅재 재활용 장려

역청의 자원화를 위한 코팅재의 재활용

범위: 전세계 콜라스 생산 사업



14 % 2014년

콜라스는 코팅 골재 재활용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사 사업에 필요한 역청(재생 불가능 원자재)의 자원화 활동과 골재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을 통해 자재 폐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종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 (p. 14 참조)



사진으로 본 2014년

1. 방콕의 주거용 빌딩 3 동 건설현장 및 완공 후 방콕 최고층 빌딩이 될 마하나콘 빌딩 건설 현장(부이그 건설)
2. Wilmotte & Associés가 설계하고 부이그 부동산이 2014년 판매한 파리의 SMA 본사 신사옥
3. 남-몽펠리에 고속철 우회선로 공사(PPP -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부이그 건설 - 콜라스 - 알스톰 참여)
4. 2014년 싱가포르에서 개장한, 세계 최대의 PPP 스포츠 시설인 종합 스포츠 센터 스포츠 허브
5. 레유니옹 해안도로의 고가도로, 제방도로, 임체교차로 수주 (부이그 건설 - 콜라스). 완공된 고가도로는 프랑스 최장의 고가도로로 부상할 것이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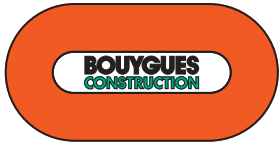
3



4



5



전세계적인 건설 및 서비스 업체 부이그 건설

세계 80 개국에 진출한 부이그 건설은 전세계적인 업체이다. 프로젝트 자원 조달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단계에 걸친 부이그 건설의 노하우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건설의 선두 주자로서, 모든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과제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방식을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민간 및 공공 건물: 주택, 학교 및 대학, 병원, 호텔, 사무실 건물, 경기장, 공항, 교도기관 등.

토목: 도로, 철도 및 항만 인프라, 구조물, 복합적 토목 프로젝트.

에너지 및 서비스: 에너지망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공공 조명, 전기 엔지니어링, 기후 엔지니어링, 기계 엔지니어링, 설비 사후관리.

양허 사업: 교통 인프라, 스포츠 및 오락 시설, 항만 지역 등의 관리 및 운용 등.

53,474 명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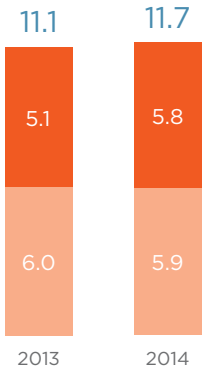
상세 정보:

www.bouygues-construction.com
@Bouygues_C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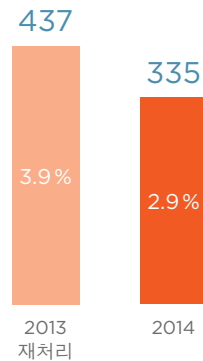


● 국제부문
● 프랑스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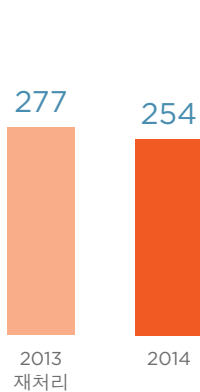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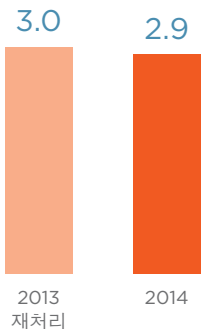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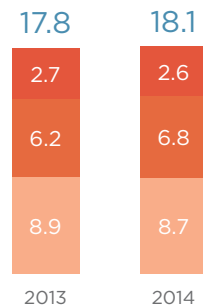
순현금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수주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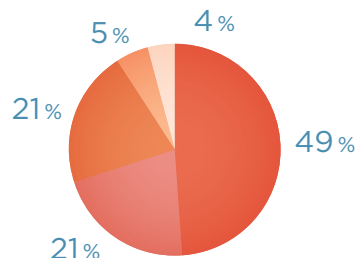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 5년 이상 비중
● 2 ~ 5년 비중
● 1년 이하 비중

지역별 수주잔액

12월 말 기준



● 프랑스
● 유럽(프랑스 제외)
● 아시아 및 중동
● 미대륙
● 아프리카

부이그 부동산은 녹색 부동산 부문의 전문성에 힘입어 도시 개발-운용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부이그 부동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 고도의 기술력 및 건축 역량,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주택:** 주택 최초 구입자들, 실버타운 및 개인주택에 중점을 둔, "엔트리급-중급"의 포지셔닝.

• **기업 부동산:** "턴키" 방식의 건물, 에너지 생산 건물(Green Office®), 기존 사무실 건물 리모델링(Rehagreen®).

• **지구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계획과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진행시 지자체 지원(UrbanEra®).

• **국제부문:** 벨기에, 폴란드, 모로코에 진출.

1,968 명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상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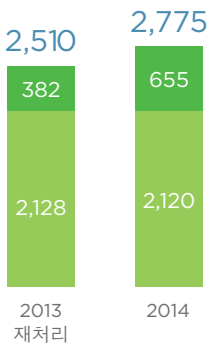
www.bouygues-immobilier.com

@Bouygues_Immo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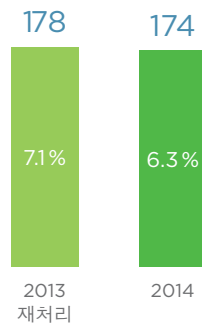


- 기업 부동산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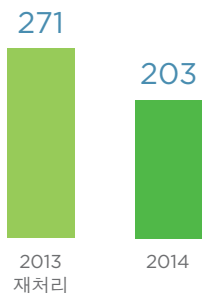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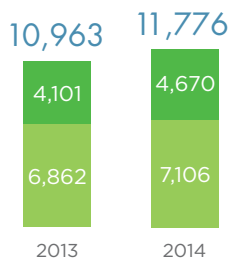
순현금

단위: 백만 유로, 12월 말 기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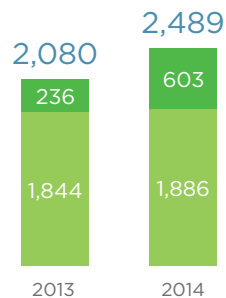
단위: 예약매물



- 복수 예약
- 개별 단위 예약

예약매물

단위: 백만 유로



- 기업 부동산(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콜라스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사후 관리 부문의 리더사이다. 세계 5 대륙 50 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콜라스는 편리한 교통, 도시화, 환경 분야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10만 건의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다. 콜라스는 또한 대부분의 자사 사업 부문 관련 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다.

- **도로:** 도로, 고속도로, 공항 활주로, 항만 및 물류 플랫폼 건설 및 관리, 도시계획, 레저설비 조성, 대중교통

전용 노선(트램웨이, 버스) 건설, 토목 구조물, 건물.

건축자재 생산, 재활용 및 판매: 골재, 유제/접합제, 코팅재, 레미콘, 역청.

- **전문분야:** 철도(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레일 갱환, 사후관리), 방수, 정유 기반 제품 판매, 도로 신호 안전, 파이프라인.

59,682 명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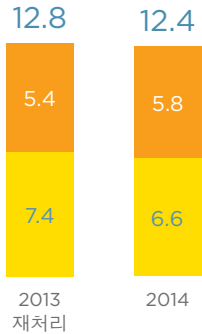


상세 정보:
www.colas.com
@GroupeColas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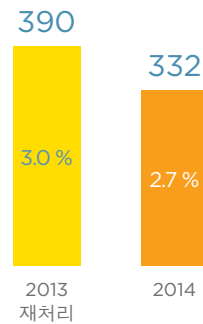


- 국제부문
- 프랑스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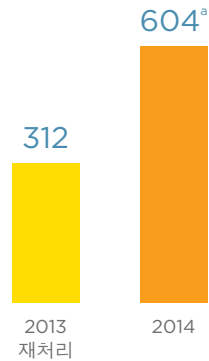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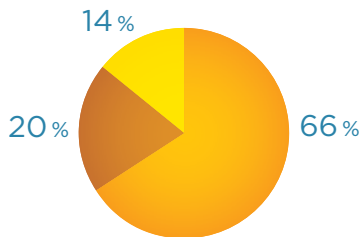
(a)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매각으로 인한 3억 8500만 유로의 순매도차익 포함

수주잔액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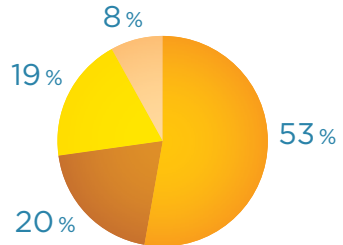


사업부문별 매출액



- 도로 건설
- 전문 분야 사업
- 건설용 제품 판매

지역별 매출액




- 프랑스
- 유럽(프랑스 제외)
- 북미
- 기타 지역

미디어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TF1





TF1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다. 특히 프랑스 제1의 무료 텔레비전 방송국 보유사인 TF1 그룹은 전매체상에서 독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주요 지표

2,951 명

총직원수

22.43억 유로 (-9%)

매출액

1.43억 유로 (-36%)

경상영업이익

2014년 TF1은 프로그램 전부문에서 프랑스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5 건을 기록하였다. 시트콤 <우리 이웃(Nos chers voisins)>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014년 TF1 그룹은 높은 시청률을 유지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디지털 혁신 전략이 유효적절함을 입증하였다.

TF1은 공중파 방송 4 개 채널 (TF1, TMC, NT1, HD1)을 보유한 무료 민영 텔레비전 제1위 그룹으로, 2014년 누적 시청률 28.7 %^a를 기록하였다. 이들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적극 번주함으로써 TF1은 유무선을 막론하고 새로운 텔레비전 시청 방식을 즐기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유료 텔레비전 부문에서도 TF 1은 유로스포츠, LCI, TV Breizh, Histoire 및 Ushuaia TV 등 양질의 테마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TF1의 광고국은 이러한 독보적인 입지를 심분 활용하여, 광고주들에게 자사 채널들의 광범위한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용 디지털 미디어의 혜택도 동시에 제공한다.

TF1 그룹은 또한 다양한 콘텐츠 (영화, 픽션 등)를 제작하여 모든 매체에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 (홍소핑, 라인센스 판매 등)도 개발하고 있다.

TF1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업활동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시청자, 주주, 협력업체 등)와 대화하고 있다.

2014년 TF1은 <2014년 프랑스인이 가장 애청하는 방송국^b>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디어 CB 뉴스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략

TF1 그룹은 다음 2대 축을 기반으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무료 채널 리더사의 입지를 유지하되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
-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을 도모할 것.** TF1 그룹은 콘텐츠 소비 패턴과 광고 영업 방식의 변화에 부응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청각 저작권 시장에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강점

- **프랑스 시청각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TF1을 비롯하여 상호 보완적인 공중파 4개 채널을 보유한 TF1 그룹은 프랑스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누리고 있다.
- **텔레비전과 디지털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자사 채널에 광고되는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인다.
- **광고주들에게 독보적인 노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시청자 및 누리꾼들에게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자타가 공인하는 노하우**로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
-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하여 TF1 그룹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생성할 수 있다.
- **유망 파트너십.** 특히 2014년 가을 발표된, 독일 방송국 ProSiebenSat.1의 주도로 결성될 범유럽연합 Media For Equity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는 벤처 기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광고주를 모집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를 필두로 전문분야의 전략적 혁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견조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TF1 그룹은 야심찬 성장 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재원을 갖추고 있다.

(a) 출처: 미디어메트리, 2014년 연평균

(b) 출처: Puremedias.com, RTL 및 20 Minutes의 여론조사인 TV Note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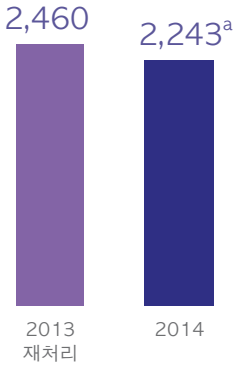


<더 보이스>와 플로랑 파니, 자지이, 미카, 제니퍼 등 네 명의 코치가 금정의 파동을 일으키다.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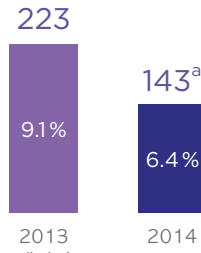


(a) 2014년 5월 30일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의 지배지분을 매각한 후, 2014년 6월 1일부터 TF1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49%의 지분에 지분법 평가를 적용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의 기여분은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경상영업이익 2600만 유로였다.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2014년 시청률

TF1, 텔레비전 최고 시청률 100 건 중 95 건^a 기록.

최고의 TV 시청률

1690만 명^a의 시청자들이 TF1이 방영한 프랑스-독일전 시청(2014년 피파 월드컵).

영화

영화 <컬러풀 웨딩즈> 상영 대성공.

유로스포츠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의 최대 주주가 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와의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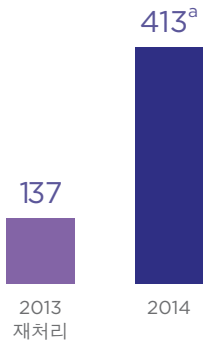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새로운 3개년 장애 분야 협정 실시.

(a) 2014년 100대 TV 시청률(메디아메트리-메디아멧)

그룹 지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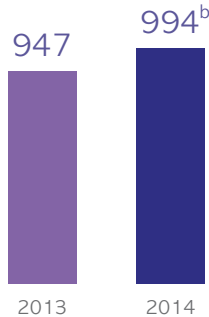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a) 유로스포츠 인터내셔널의 순매도차익 3억 유로(31%)와 잔여 지분(49%) 재평가 포함

4개^a 공중파 채널 프로그램 편성 비용

단위: 백만 유로



(a) TF1, TMC, NT1, HD1
(b) 2014년 피파 월드컵 방영 관련 비용 7400만 유로 포함

사회 유대 진흥

사회연대 사업의 총 가치(TF1 그룹 방송국들이 기부한 방송 시간, 재단, 금전 기부 등의 가치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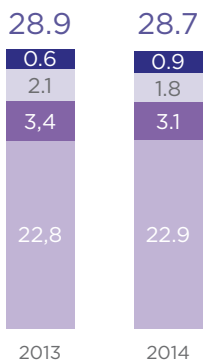
3550만 유로
2014년

2014년 TF1 그룹 방송국들은 특히 프라임 타임에 사회연대를 위한 프로그램(Restos du coeur: 취약층 식사 제공, Pièces jaunes: 동전 모으기, Sidaction: 에이즈)을 적극 편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TF1 그룹의 공중파 채널 시청률 점유율^a

단위: %

4세 이상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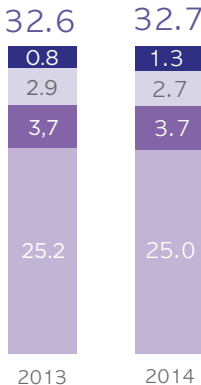
● TF1 ● TMC ● NT1 ● HD1

(a) 출처: 메디아메트리 집계 연평균

TF1 그룹의 공중파 채널 시청률 점유율^a

단위: %

구매를 책임지는 50세 이하 여성



시청자와의 대화

다양한 SNS 상의 팬과 팔로어 수

3000만 명
2014에는 2013년 대비 1000만 명 증가

시청자들은 SNS(특히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항상 프로그램 및 진행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오늘날 TF1의 프로그램들은 SNS 상에서 가장 많은 모니터링과 댓글의 대상이 되고 있다. MYTF1 및 메트로뉴스도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2014년 어플리케이션 상수여시 각각 <베스트 모바일 앱> 상과 <베스트 뉴스 앱> 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사업현황

TF1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프랑스 민영 방송 1위^a 그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제1 시청각 그룹

2014년 TF1 그룹 4개 공중파 채널은 28.7 %^b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여성 시청률은 2013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32.7 %에 달했다. TF1 채널은 22.9 %^b (+ 0.1 포 인트)로 시청률이 증가하여 리더사의 입지를 공고히하였다. TMC와 NT1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극심한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HD1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멀티스크린 디지털 상품을 강화한 TF1은 미디어메트리카 IPTV^c의 재방 시청 등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유발되는 시청률도 점차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보다 유리하게 집계되었다.

2014년은 TF1이 축구 월드컵 방영으로 시청률 기록을 경신한 해이기도 하다.

가계 소비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소비자 서비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TF1 비디오는 <컬러풀 웨딩즈>의 성공의 혜택을 입었으며, 홈쇼핑 채널인 텔레쇼핑과, TF1 앙트르프리즈도 역동성을 유지하였다.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유료 텔레비전 부문은 스틸리아와 TF6(M6 그룹과 공동 보유) 채널을 2015년 폐국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TF1 그룹은 또한 2014년 유로스포트츠 인터내셔널의 최대 주주가 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와의 파트너십을 계속 추진하고 하였다.

2014년 실적

2014년 TF1 그룹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22억 4300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6월 1일자로 시행된 유로스포트츠 인터내셔널의 계정 분리를 반영하고 있다. 유로스포트츠 인터내셔널 계정 분리의 영향을 제외하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가격 압박이 가중되어 지상파 채널 광고 매출액이 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매출액은 경미한 신장세(+1%)를 보였다.

TF1 그룹은 시장 적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2900만 유로의 반복 비용 추가 절감을 달성하면서 비용최적화계획을 마무리하였다. 무료 텔레비전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총 2억 4000만 유로의 반복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

TF1 그룹 소속 4개 공중파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비용은 9억 9400만 유로로 4700만 유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4년 피파 월드컵 방영 관련 비용 7400만 유로를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프로그램 편성 비용은 2600만 유로의 대폭 절감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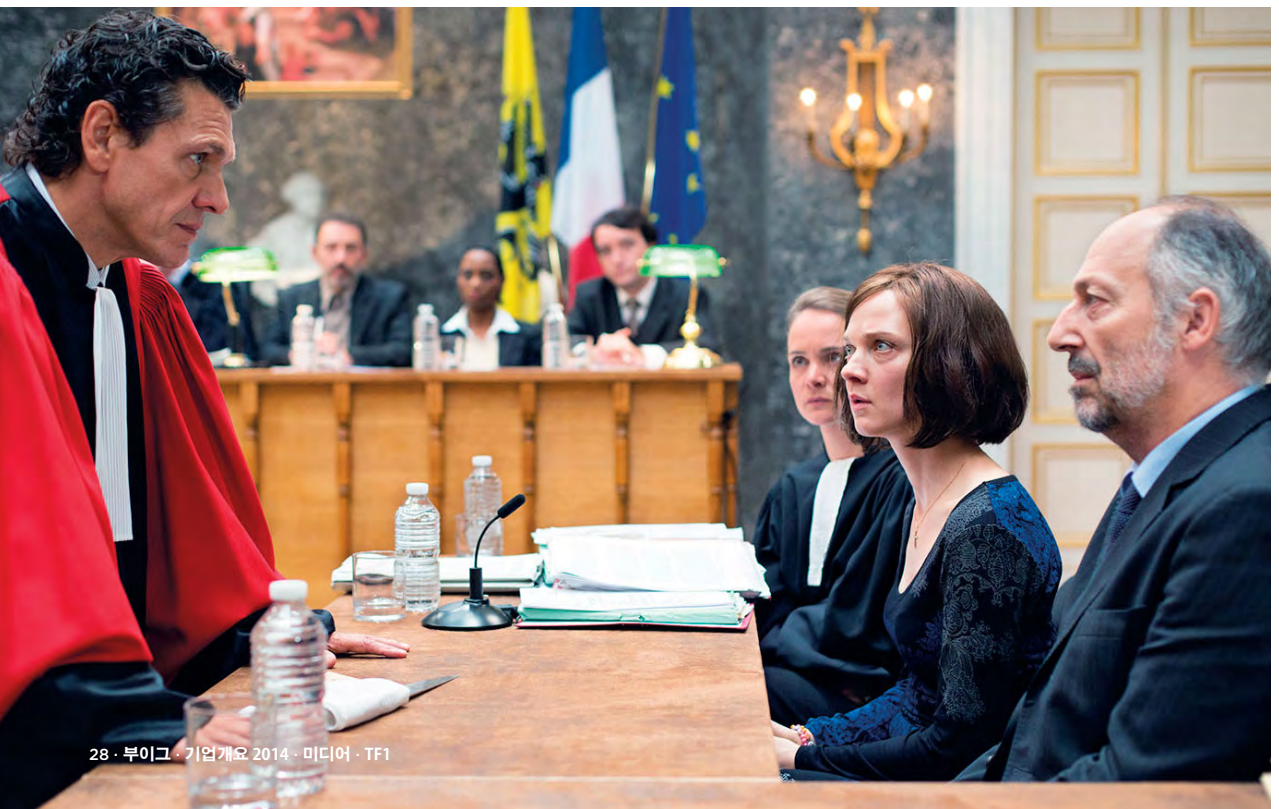
피파 월드컵 방영과 유로스포트츠 인터내셔널 매각으로 인한 범위 변화에 따라 2014년 경상영업이익은 1억 4300만 유로로 감소하였다. 2014년 영업이익에는 유로스포트츠 인터내셔널 지분 매각에 따른 차익 3억 2800만 유로가 포함된다. 그룹 지분 순이익은 4억 13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 유로 상승하였다. TF1 그룹은 또한 2014년 말 기준 4억 9700만 유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 (a) 미디어메트리카-미디어마트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통산 시청률 - 대상: 4세 이상의 개인
- (b) 미디어메트리카, 2014년 연평균
- (c) IP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의 텔레비전



상세 정보:
www.groupe-tf1.fr
 @TF1Corporate

2014년: TF1에 방영된 프랑스 픽션 부문 시청률 신기록 경신. 2015년 TF1은 마크 라부안느가 출연하는 <람프리즈(L'emprise)>를 방영할 예정이다.



1. 멀티캠을 통한 몰입 체험
2. <컬러풀 웨딩즈> DVD
3. 포스가 우리와 함께 하길: <스타워즈 아이덴티티> 전시회
4. 가브리엘사의 광고 영상 <프랑스인>



1



2

2014년 리포트

2014년 피파 월드컵에 멀티캠 적용

멀티캠은 시청자들이 영화 감독처럼 시청 앵글을 선택함으로써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뜻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몰입의 체험을 제공한다. 축구 월드컵 경기와 <스타와 함께 춤을 (Danse avec les Stars)>에 제공되었던 이 혁신적인 기능이 2015년에는 <더 보이스>에도 제공된다. 멀티캠 기능은 앱스 트로피(Trophées des Apps)와 2014년 소셜 미디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컬러풀 웨딩즈>

이 블록버스터는 2014년 11월 말 기준 12,237,000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600,000 장 이상의 DVD 및 블루레이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코미디는 또한 750,000 건의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서비스 판매로 동부권 기록을 수립하였다.

<스타워즈 아이덴티티> 전시회

파리의 시테뤼시네마에서 개최된, TF1 뮤직 제작의 <스타워즈 아이덴티티> 전시회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모은 후 리옹으로 자리를 옮겼다.

긍정의 파동

2014년 4월 TF1은 그룹 직원들이 선택한 새로운 기업 슬로건 "긍정의 파동을 나눕시다"를 발표하였다.

시청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이 낙관적인 새로운 포지셔닝을 반영하여 광고 영상 "프랑스인"이 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2014년 커뮤니케이션 & 기업 상을 수상하였다.



4

TF1 그룹의 투명성

TF1 그룹은 2013년 발표한 준법재무정보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SBF 120 지수를 구성하는 120 개 기업 중 2014년 투명성 대상 수상사로 선정되었다.

프랑스 전자통신의 주요 사업자
부이그 텔레콤은 1996년 창사
이래 더 많은 이들이 디지털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2014년 주요 지표

8,817 명

총직원수

44.32억 유로 (-5%)

매출액

-6500만 유로

영업이익

1350만 명

고객수

2013년 말 4G 서비스 개통 시 르동(오-드-센느 지방)에 위치한 부이그
텔레콤의 테크노폴 전경

통신

고객에게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는 부이그 텔레콤





2014년 부이그 텔레콤은 개인 고객, 전문직 및 기업 고객들의 새로운 통신 사용 형태와 요구사항에 적합한 공세적 전략을 전개하였다.

전략

부이그 텔레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의 혜택을 심분 누리게 하는 사업자로서 입지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입지에 힘입어 부이그 텔레콤은 다음 3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치 재창출

즉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세상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4G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폭증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4G의 등장과 그 이후의 변화에 따라 고객들은 새로운 모바일 소비 패턴 - 예를 들어 스티리밍으로 동영상 시청이나 음악 청취 등 - 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부이그 텔레콤은 개인 고객과 기업 부문 양면으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유선통신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

부이그 텔레콤은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서비스와 초고속 통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선통신 시장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부이그 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ADSL^a 및 FTTH^b 상품군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유선통신 인프라 (ADSL 및 FTTH)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부이그 텔레콤의 목표이다.

동시에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을 위한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 하에 선보인 Bbox 마이애미는 기존 텔레비전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의 세계를 연결하는 최초의 셋톱 박스이다.

BtoB 사업 개발

개인 고객 부문이 급변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업 부문은 특히 4G가 제공하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부이그 텔레콤의 성장 동력이다.

강점

- **모바일 고객 1110만 명, 유선 고속 인터넷 고객 240만 명.**
-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접근성**으로 대폭 발전한 고객들의 사용양상을 지원.
- 자타가 품질을 인정하는 **고성능 유무선 통신망.**
-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인 모바일 및 유선 요금제.**
- 4,500 명의 고객 상담원 및 판매원이 580 개 클럽 부이그 텔레콤 매장, 고객 서비스, SNS, 전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양질의 고객 서비스.**
- **뛰어난 적응력.**

(a)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b) Fiber To The Home(집안까지 광케이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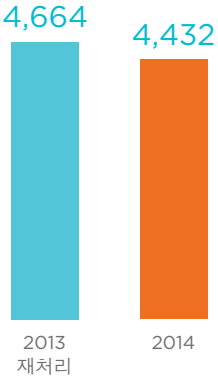


고객 상담원 이브라 디움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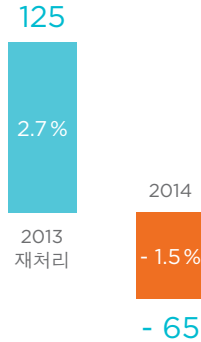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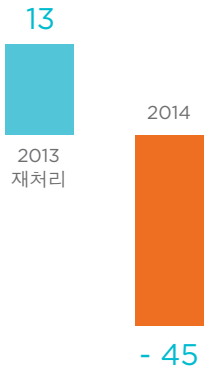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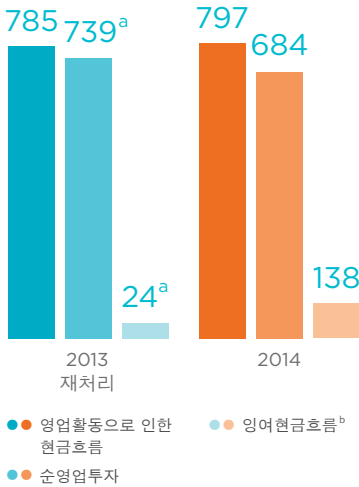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현금흐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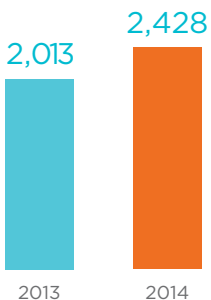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a) 4G 주파수 구입 금융비용 자본전입 1300만 유로 제외
(b)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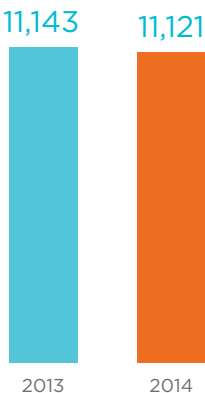
유선 고속 인터넷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모바일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1 월

SFR과 모바일 접속 네트워크 일부 공유 협정 체결.

3 월

월 19.99 유로의 Bbox ADSL 트리플 플레이 런치.

6 월

- 월 25.99 유로의 Bbox 상사시용 파이버 (FTTHa) 트리플 플레이 런치.
- 4G+ 서비스 개시.

11 월

새로운 포지셔닝과 단순화된 모바일 요금제 출시 발표.

(a) Fiber To The Home(집안까지 광케이블이)

환경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제어

2014년 부이그 텔레콤은 몽티니-르-브르토네 (이블린 지방)의 부이그 고객센터 및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ISO 50001 인증을 갱신하였다. 2014 말 기준 사무실 및 데이터 센터 총면적의 37%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구매



책임구매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실천현황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와 감사를 계약기간 전기간에 걸쳐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개선 계획이 동반된다. 2014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사를 15회 실시함으로써 감사(특히 부이그 텔레콤 브랜드의 제품 제조사 대상)가 강화되었다.

프랑스 인증기관 Afnor Certification은 부이그 텔레콤이 고객서비스 제공사(외주 센터) 선정시 실시하는 책임구매 정책을 인정하여 발주자의 사회적 책임 라벨을 갱신하였다.

2014년 사업현황

2014년 부이그 텔레콤은 공세적 전략을 추구하여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였으며, 연초에 결정한 기업 사업개편계획을 실시하였다.

공세적 전략의 첫 결실

2013년 말 4G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개시한 후,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부이그 텔레콤은 4G 네트워크 전개를 계속하여 2014 말에는 프랑스 국민 71%(본토)에게 커버리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부이그 텔레콤의 고품질 4G 네트워크로 인해 고객들은 새로운 모바일 소비 패턴을 채택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인터넷 사용은 3 배 증가하였다. 2014년 말 부이그 텔레콤의 능동적 4G^a 고객은 31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부이그 텔레콤 모바일 고객의 28 %에 해당된다.

2014년 11월 부이그 텔레콤은 요금제 라인업을 크게 단순화하여 기존 고객들이 전혀 추가 비용 없이 향후 요금제에 포함될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2014 말 부이그 텔레콤의 모바일 고객은 1110만 명으로, 1 년간 220,000 명의 요금제 고객 순증가를 보였다

유선 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월 19.99 유로의 Bbox ADSL 트리플 플레이와 월 25.99 유로의 Bbox 상사시용 파이버 Fibre(FTTH) 트리플 플레이 등, 매우 매력적인 가격의 고품질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2013년 10월에서 2014년 12월의 기간 동안 5 분기 연속 유선통신 순성장 1 위^b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부이그 텔레콤의 유선 통신 고객은 240만 명에 달한다(1 년간 415,000 명의 추가 고객 확보).

기대에 부응하는 재무실적

2014년의 재무실적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고객 베이스의 가격 재조정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3년 대비 5 % 감소한 44억 3200만 유로에 달했으며, Ebitda^c는 2013년 대비 1억 8600만 유로 감소한 6억 9400만 유로를 기록했다. 경상영업이익은 -6200만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은 -4500만 유로에 달했다.

2014년 부이그 텔레콤은 Ebitda^c에서 투자액을 제한 결과가 양수(+)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 (a) 4G 요금제와 4G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
- (b) 2014년 4분기는 자사 예측에 따름
- (c) (사용 또는 미사용 준비금 / 감가상각금 재편입 후) 순감가상각배정액/준비금 및 감가상각금을 감안하여 재계산한 경상영업이익



상세 정보:

www.bouyguetelecom.fr
@bouyguetelecom

2014년 트리플 플레이 요금제 광고

MAINTENANT LA BOX C'EST



19

€99 / MOIS

INTERNET HAUT DÉBIT* - 165 CHÂÎNES TV APPELS ILLIMITÉS

APPELEZ LE **3106** GRATUIT DEPUIS UN FIXE

MAGASINS
BOUYGUES TELECOM



*Débit variable en fonction de la longueur de la ligne.
Offre soumise à conditions en zone éligible. Appels (hors n° spéciaux) vers les fixes en France métrop.
Frais de résiliation et dépôt de garantie : 49€ chacun. Détails sur bouyguetelecom.fr
Bouygues Telecom - Société Anonyme au capital de 712 588 399,56€ - Siège social: 37-39, rue Boissière - 75116 PARIS - 397 480 930 R.C.S. PARIS - DDB



1. 부이그 텔레콤 통신 네트워크 감독 센터의 관제실
2. 2015년 초 출시된 혁신적 상품 Bbox 마이애미
3. 부이그 텔레콤의 강점 4G

2014년 리포트

4G+: 편이성 증가

부이그 텔레콤은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결합하여 통신사 중 최초로 2014년 6월에 이미 4G+(LTE-Advanced)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최대 220 Mbit/s*에 달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로 고객들은 이동중에도 가정의 광섬유망에 비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a) 이론적 최대 수신 속도



Bbox Miam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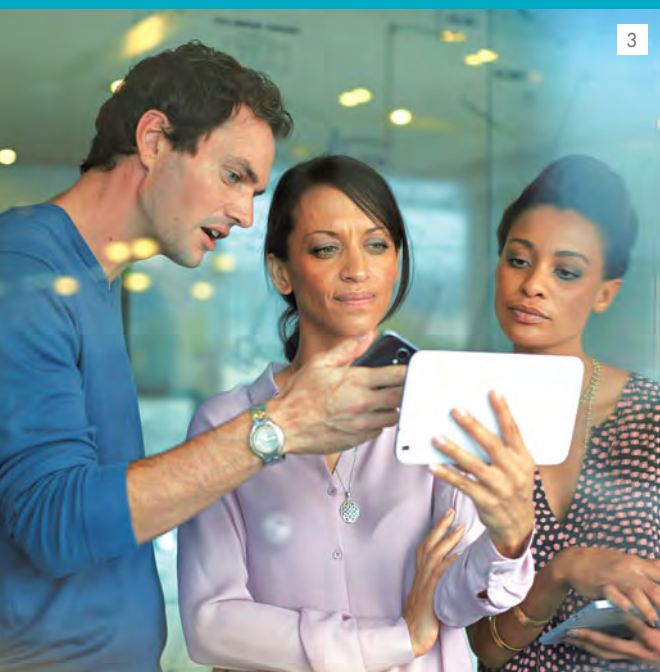
2015년 초 출시된 Bbox 마이애미

구글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출시된 Bbox 마이애미는 사상최초로 부이그 텔레콤이 고안 및 개발한 동일 인터페이스 상에서 기존의 텔레비전과 인터넷 텔레비전을 결합하였다. Bbox 마이애미는 월 25.99 유로의 요금으로 부이그 텔레콤 프리미엄 텔레비전의 모든 서비스(163 개 채널, 재방, VOD*, 넷픽스를 포함한 SVOD* 등), 혁신적인 추천검색어 제시 검색엔진, 최고의 웹 서비스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를 제공한다. Bbox 마이애미의 방송 방식(스트리밍 TV)은 추가적으로 200만 가구들에게 텔레비전 접근권을 제공하였다.

(a) 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b) Subscription Video-on-Demand, 예약주문형 비디오

71% 부이그 텔레콤의 4G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프랑스인 비중, 즉 4500만 명
(2014년 12월 31일 기준, 프랑스 본토)



3

기업부문의 성장

양질의 4G 커버리지와 속도는 부이그 텔레콤 앙트르프리즈의 뚜렷한 강점으로 작용하여, 프랑스 우정청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4G 서비스 개시 후 가입 단말기수도 16 % 성장하였다.

네트워크 공유

2014년 10월 부이그 텔레콤과 SFR은 양사의 모바일 접속 네트워크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 협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인구 57 %의 커버리지에 해당된다.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커버리지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협정의 목표이다.

알스톰: 미래 만들기



알스톰 시타디스 차량 라인업. 사진은 두바이의 다이아몬드 트램웨이.

2006년 6월 부이그는 알스톰의 프랑스 정부 지분 21.03 %를 20억 유로에 인수하였다. 부이그 그룹은 그 후 점차적으로 지분을 확장하여 2014년 12월 31일 기준 29.24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알스톰의 전략방향 재수립

2014년 6월 20일 알스톰 이사회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알스톰의 에너지 부문을 최종 확정 가격 123억 5000만 유로에 인수하고, 알스톰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호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철도 제휴를 체결하기로 한 제안을 승인하였다.

2014년 12월 19일, 알스톰의 임시 주주총회는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는 안을 99.2 %의 다수결로 승인하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안은 규제당국 및 일정 관할국에서 기업집중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 절차가 끝나면 알스톰은 교통 부문 및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에너지 부문 제휴에 집중할 것이다.

지속 사업

철도교통: 전망 좋은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 보유

철도교통은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견조한 글로벌 시장이다 (2011/13년에서 2017/19년 사이에 예측되는 연평균 성장률 2.8%^a). 지속가능교통을 진흥하는 알스톰은 철도 부문에서 가장 종합적인 시스템, 장비, 서비스 라인업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알스톰의 상품 및 서비스는 초고속철, 알스톰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도시 교통, 그리고 트램웨이, 지하철, 교외 및 지방 철도, 기관차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알스톰은 차량, 신호, 인프라, 사후관리, 현대화 등 교통 시스템 전반을 관리 하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안 한다.

에너지 사업: 3 개의 공동기업 설립

협정의 내용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 (GE)과 알스톰은 모든 절차 종료 후 3 개의 공동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알스톰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b 첫 번째 기업은 알스톰



2014년 9월부터 운행중인 오바뉴의 시타디스 컴팩트.

그리드와 GE 디지털 에너지의 사업을 통합하여 전기 네트워크 분야를 관장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를 담당할 두 번째 기업은 역시 알스톰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할 것이며^b, 해상 풍력발전과 수력발전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다. 알스톰이 20 %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마지막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사업 분야를, 그리고 프랑스에서 증기 부문을 관장하게 될 것이다.

실적 방법론

알스톰과 제너럴 일렉트릭 사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특히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여,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은 IFRS 5 회계 기준에 입각하여 중단 사업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데이터는 동 기준에 입각하여 산출된 것이다.

2014/15 회계년도 첫 9 개월

2014/15 회계년도 첫 9 개월(2014년 4월 1일 ~ 12월 31일)간 알스톰의 지속 사업 부문 수주량은 80억 유로로, 2013/14 회계년도 첫 9 개월 대비 52 % 상승하였다.

매출액은 46억 유로로, 2013/14 회계년도 첫 9 개월 대비 12 %의 유기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주잔액은 270억 유로로, 4 년간의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 (a) 출처: 유럽철도산업연맹 (UNIFE) - 2014
- (b) 알스톰 지분이 1 주 적음

2014년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외 열차 600량 수주와 이와 연계된 18 년간의 사후관리 및 생산 공장 설계 계약(40억 유로, 알스톰 사상 최대의 계약).

2014년 6월

카타르 최초의 턴키 방식 트램웨이 시스템 (4억 5000만 유로 및 옵션 3억 유로).

2014년 12월

멕시코의 지하철 시스템 전체 주문 (2억 4000만 유로).

BOUYGUES

**부이그 그룹
본사**

32 avenue Hoche
75378 Paris cedex 08 -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bouygues.com
트위터: @GroupeBouygues

부이그 건설

본사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78061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전화: +33 1 30 60 33 00
bouygues-construction.com
트위터: @Bouygues_C

부이그 부동산

본사

3 boulevard Gallieni
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France

전화: +33 1 55 38 25 25
bouygues-immobilier-corporate.com
트위터: @Bouygues_Immo

콜라스

본사

7 place René Clair
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7 61 75 00
colas.com
트위터: @GroupeColas

TF1

본사

1 quai du Point du jour
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1 41 12 34
groupe-tf1.fr
트위터: @TF1Corporate

부이그 텔레콤

본사

37-39 rue Boissière
75116 Paris
France

전화: +33 1 39 26 60 33
corporate.bouyguestelecom.fr
트위터: @bouyguestelecom



부이그 그룹 인터넷 및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추가 자료(슬라이드, 동영상, 기타 자료)가 있는 인터랙티브한 기업개요를 만나실 수 있으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춘 태블릿으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